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우연히 삼남의 운자를 써서

偶用三南韻

그름밤 바람에 눈보라 치고

月黑風吹雪(월흑풍취설)

놀란 새 나무 들레 세 번 도누나.

驚鳥繞樹三(경조요수삼)

등불 앞 만 리의 떠돌이 신세

燈前萬里客(등전만리객)

흰 머리로 강남땅에 남겨졌고나.

頭白滯江南(두백체강남)

뚝뚝

滴滴

뚝뚝 눈에선 눈물 흐르고

滴滴眼中淚(적적안중루)

소복소복 가지 위에 꽃이 폈구나.

盈盈枝上花(영영지상화)

봄바람 한 마저 불어 가더니

春風吹恨去(춘풍취한거)

한밤새 하늘가에 이르렀구나.

一夜到天涯(일야도천애)



영주 대영고(高) 권무탁 이사장

서울대(大) 수시합격자 3명

학교법인 대영교육재단(대영중·고등학교)의 권무탁 이사장·본원 부총재가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매일 신문에 서울대 수시합격자로 대영고의 이재승·강규·강민 구 군 3명이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대영고등학교는 3학년이 4학급으로 120여 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 서울대에 140명, 연세대에 105명, 경찰대에 15명 등을 합격시켰으며 명문사학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 학교의 권무탁(76, 32세, 검교공과)이사장은 얼마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교사들의 신념과 '하면된다'는 학생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며 학생과 교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혁세 기자>

■역사기행

근대사의 중심 대한제국 고종황제와 덕수궁

■ 향촌 권오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위원)

<지난호에 이어>

즉조당 옆에는 함녕전과 덕흥전이 있다. 이 곳은 고종의 환어와 함께 1897년에 건립된 왕의 침전이다. 1904년 대화제로 소실된 후 중건되었고 고종은 이 곳에서 기거하다가 1919년 68세로 승하한다.

1904년 대화제는 일제가 방화한 것으로 의심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국의 공사관사이에 고종이 기거한 것을 일제가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함녕전의 대청마루에는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김 구(백범)의 사형집행직전에 고종이 그 전화로 사형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함녕전 뒤쪽에는 전관헌이 있다. 이 곳은 궁궐후원의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궁궐을 내려다볼 수 있는 휴식공간 건물이다. 고종은 전관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외교사절과 연회를 즐겼다.

커피와 관련하여 1888년 고종의 독살미수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역관출신 김홍록이 통역을 병자하여 국정을 난단한 것이 발각되어 유배형을 받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하수인을 시켜 고종과 황태자(순종)가 마시는 커피에 독을 넣었다. 그러나 다행히 고종은 입에 넣은 커피를 뱉었지만 황태자는 한모금 마신 후였으므로 이를 토했으나 후유증이 유발되었다고 한다.

궁궐 서쪽에 석조전이 있다. 석조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서양식 건물이다. 고종은 침전 겸 편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00년부터 10년에 걸쳐 지었다. 1층은 시



종이 기거하는 방과 부속시설이고 2층은 접견실 3층은 침실과 다용도실이다.

석조전앞에는 서구형 정원과 분수대가 설치되었다.

석조전은 해방 후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장소로도 유명하다. 모스크바협정에 의하여 미소 양군의 대표자들의 1946년 1월16일에 한국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함에따라 동년 3월 20일에 제1차 회담 5월20일 제2차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당시 국내정치단체의 상황은 이승만계는 자율정부 수립주장 김구계는 반탁 통일주장 김규식계(중간우파)는 좌우합작 주장 여운형계(중간좌파)는 주도좌우합작주장 좌익계는 좌익주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6년 10월 미국에 의하여 한 국문제가 UN총회에 상정됨에따라 미소 공동위원회는 해체된다.

중명전은 궁궐을 확장할 때에 그 곳은 이미 미국공사관이 자리잡고 있던터라 별궁처럼 되고 말았다.

이 곳에서 1905년(광무9년) 11월17일밤 을사조약이 체결된 곳이고 1907년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 당시 고종이 기거하고 있던 중명전에서 일제는 고종과 대신들에게 을사조약을 조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 날 국내외에 무장 일본군을 배치하고 공포 분위

기를 조장하였다. 이날 일본공사 하야시가 이미 일본대사관으로 대신들을 불러 조약체결을 종용하였으나 오후가 되도록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전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어전회의에서도 조약체결조인은 거부되었다. 이에 이토오히로부미는 세 번에 걸쳐 고종을 협박하였다.

고종이 끝내 거부하자 이토오는 찬성하는 대신을 대리고 조약을 체결하였다. 고종은 서명이나 옥쇄날인을 하지 않으므로서 끝까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을사조약 체결찬성을 한 대신은 내부 이지용 군부 이근택 외부 박제순 학부 이완용 농상공 권중현, 반대를 한 대신은 참정대신(수상) 한규설 탁지 민영기였고 조약체결과 무관한 대신은 궁내부 이규국이였다.

을사조약은 일본과 한국간의 5조로 체결된 조약이고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러시아 영국 미국등이 승인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1)일본의무성이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통리 지휘한다 (2) 한국은 일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한국의 황제실에 1명의 통감을 두어서 한국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이는 모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간섭을 관장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덕수궁은 환구단 궐내각사와 선원전 터 등은 도시계획과 도로시설 등으로 해체되었고 터의 소유권도 많이 넘어가서 변동되었다.

현재는 덕수궁의 복원가능한 지역은 복원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다. 참으로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영욕의 현장이며 황제국건실의 희망의 불씨를 일으켜 제국의 근대세계를 향하여 도약한 곳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필>

■ 모범 청년회 순례 ①

안동능곡회 편

권문에 대한 자긍심과 송조돈종 일가간의 상호화합과 애족사상에 투철한 안동지역 모든 업종과 세대에서 모범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체로서, 더불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문의 번영과 송조사상, 권문의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안동능곡회는 지난 1988년 8월 초대 권영상변호사를 중심으로 창립총회를 가져 출범했다. 이어 권수철, 영태, 영준, 혁목, 혁철, 영택, 희태, 태지, 윤성, 윤성(연임), 기원(장춘보석), 오창, 오삼, 장호, 기종, 기원(법무사), 영국회장을 거쳐 현재 27대 권기덕 현회장으로 청년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안동(靑門)의 청년상의 좌표를 던지며 안동지역 청년규합과 문화향수에 새 장을 펼쳐왔다.

그간 주요행사의 실적으로서는 ①시조모소가 있는 능골 능동재사에서 묘역수호, 재사청소 및 주변 환경관리, 권문자녀



권기덕 회장

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②시·아조춘·추향제 대담회 참여 및 제수물 봉송, 음복례, 식사, 제례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③안동, 영주, 의성을 중심으로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조직하고 발전시켜 전국의 권문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④안동권씨보화강화 실시, 능동고택음악제 실시를 통해 안동지역 권문의 위상향상과 단합, 자긍심함양에 기여했다. ⑤전국에서 안동권씨의 뿌리를 찾는 우리 권문여러분에게 시조묘역 제사 안내, 안동지역 관광안내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의 추진사업으로서는 춘·추향제 적극적 참여, 시조묘역에 대한 권문자녀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 활성화, 척사대회, 능동고택음악제 개최와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참가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회원들이 나아가 권문의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조직적 합리적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해 앞장서 가고 있는 권기덕(49세)회

장은 경북대 인문대학을 졸업하고 93년 9월 안동종로학원을 개원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어 안동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경북대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북대, 대구대, 서원대, 방송통신대에서 “현대사회의 법”의 등의 강의(2005.9-2008.9)를 했으며, 현재도 서원대, 방송통신대, 안동대에서 명강의를 하고 있다. 안동시 학원연합회사무국장 등을 지냈으며 현 안동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안동능곡회장, 안동대 대학원법학과 동창회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발전 등에 크게 진력하고 있으며 ‘내 삶의 존재가치를 확인하자’는 생활신조와 조상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요 내 후손에 대한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령령으로 조상님을 가슴에 안고 진지하게 삶을 추구해 가고 있다.

선대계보(先代系譜)를 살펴보면 부정공과 36세손으로 단종 선위 후 벼슬을 뿌리치고 의성사촌, 행정공(杏亭公) 계열 물아문중 봉장대부 권실의 12세손으로 34세 휘 백원(百源, 한학자), 35세 휘 오대(五泰, 양부), 36세 기덕(奇德)은 휘 오동(五東)의 5남3녀 중 3남으로 태어나 숙부계 입양했고, 슬하에 최영희여사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 모범 종친회 순례 ②

부산부녀회 편

한반도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총면적이 765.94㎢, 인구가 약360만이 살고 있는 무역하지자 관광지자 주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2층버스 시티투어, 4000석을 갖춘 벡스코 오디트리움 등이 운행되며 광안대교의 불꽃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열리는 항도 부산에서 1992년 2월 28일 부녀회 준비위원회가 발기되어 그해 4월 8일, 창립총회에 초대회장 세무사 권영희 사장, 고문에 권영실 동창사 택시사장, 부회장에 권금선, 종성, 감사에 이덕순, 총무 권춘자가 추대되어 14여 명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부산부녀회가 출범했다.

이어 2대 권오순, 3대 권인숙, 4대 권금선, 5대 권춘자, 6대 권옥태, 7대 권성애,

8대 권문정, 9대 권숙이, 10-11대 권경순 현 회장이 즉친규합에 앞장 서며 부녀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부녀회는 부산종친회와 유대를 강화하며 20여 년의 뿌리를 내리면서 주일에, 안동권가의 대·소행사에 일손을 돕고 양로원 청소나 가을엔 김치담기, 보육원, 일족의 소년소녀 가장 보살피기, 부녀회 친목으로 매년 2월에 팀을 구성해 웃놀이, 가을엔 단풍놀이, 종택방문 등, 각종 경조사 참석으로 회원 간에 친목을 이어나가는 모임을 하고 있다. 한때는 회원이 60여 명으로 활기찬 활동을 하였으며 지금은 젊고 참신한 회원을 배가하여 역대 고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다.

오문문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정순회장은 忠·孝를 중시하는 명문 집안인 총복중원에서 엄친 권경도 응과 자당 김채순씨(경주김씨)의 장녀로 태어나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결혼해 현모양처로서 부

군을 내조하며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으며, 38세 때 부산 종친회로부터 연락이와 부녀회에 입문 해 7여년 동안 총무를 거쳐 현 회장으로 연임되어 부녀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힘쓰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권길삼 부산종친회장의 배려로 부녀회 단복을 바꾸고 회원모두가 일심단합해 새마음으로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그간 부녀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종원 총재의 공로패를 받기도 했으며, 권세권(權)자를 가장 貴하고 重하게 여기며, 안동권씨(安東權氏) 성씨에 자부심으로 매사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부녀회 발전을 모색해 가고 있다.

현 임원명단을 다음과 같다. ▲회장:권경순 ▲부회장:권영례, 정희, 박복술, 권쌍희, 순자, 영숙, 분남, 영희 ▲감사:최화자, 권옥자 ▲총무:설희숙 ▲부총무:권중희

<권오복 편집위원>

조선왕조의 절기풍속

■ 기로회장 권정택

절식(節食)은 달일이 끼어 있는 명절에 차려먹는 음식이고, 시식(時食)은 춘하추동 계절에 나는 식품으로 만드는 음식을 통틀어 말한다.

조선시대의 명절음식 단자와 종묘와 가묘에 천신하는 품목단자를 살펴보고, 또 일 년 열두 달 세시풍속을 알아보는 것은 한국 음식의 바탕을 아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식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궁중의 사대 명절은 왕의 탄일(誕日), 정조(正朝), 망월(望月,정월보름), 동지(冬至)이다.

민가에서 옛 부터 명절로 삼아온 초파일, 단오, 추석은 계절의 문호로 삼아 세 계절 북을 같이입는 외에는 별로 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

정조에는 하례를 받으시고 잔치를 베푸지만 단오와 추석에는 특별히 차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염집과 농가에서 큰 명절로 삼고 많이 차리고 먹고 즐긴다. 춘하추동의 시식의 풍습은 궁이나 서울이나 시골이나 매 한가지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의(朝議)를 정조, 동지, 성절(聖節:왕의 생일), 천추절(千秋節:왕세자의 생일)에는 왕이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를 행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명절날의 하례식이다.

정조, 동지, 초하루, 보름(朔望), 왕과 왕비의 탄일에는 왕세자와 백관이 조하(朝賀)한다. 초하루, 보름에는 단지 왕에 게만 조하한다. 지방관은 각각 봉임하고 있는 곳에서 진하(進賀)한다. 매월 초 5일, 11일, 21일, 25일에는 백관이 조참(朝參)한다고 하였다.

▶정월 초하루 정조(正朝)가 되면 양반집 아이들과

부인들이 들어와 ‘신년문안 아릅니다. 만수무강 하옵소서, ‘ 하고 세배를 드린다.

두 분 마마(순종, 윤비)께서는 보료에 앉아 계시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꼭 일어나셔서 세배를 받으셨다. 종묘나 가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茶禮)라 한다. 정월차례를 떡국차례라 함은 매(飯) 대신에 떡국을 올리기 때문이고, 차례를 지내느라 만드는 음식을 세찬(歲饌)이라 한다. 월단(元旦)의 절식은 흰떡, 떡국, 만두국, 약식, 약과, 다식, 정과, 강정, 전야, 빈자 떡, 편육, 족편, 누름적, 떡빚, 떡볶이, 생치구이, 전복초, 숙실과, 수정과, 식혜, 젓국지, 동치미, 장김치 등이다. 순종은 무관, 시종들과 윤 마마는 상궁나인들과 함께 놀 율이를 즐겨했는데 이긴 편나인들은 모두 모반단과 같은 고급 피륙을 상으로 받기도 하였다.

▶정월 대보름(上元, 望日) 정월 대보름을 상월 또는 망월이라고도 한다. 망월이 되면 선무사에서 호두, 잣, 밤, 대추, 황밤을 각각 한 가마씩 들여와 자숫빚 전박에 담아 두 분 마마께 바쳤다. 이 부럼들은 생과방에서 일일이 껍질을 까서 올렸다. 마마께 올리고 난 부럼은 은함에 한뼉씩 담고 노란 삼팔검보자기에 싸서 각 양반의 집으로 내보내셨다. 윤 마마께서는 나인이나 생각 시들을 불러서 뽕 들러 앉혀 놓고 잣불을 켜보도록 했다. 삼원절식의 으뜸은 약식(藥飮)이다. 약식의 유래는 ‘신라 소지왕(炤智王)이 정월15일 까마귀의 일개음으로 위기를 모면하니 그 은혜를 보답코자 잡쌀밥을 지어 까마귀에 대한 제사날로 삼았다.’고 <삼국유사>에 적혀 있다. 신라시대에는 약밥이 아니고 찹쌀밥이었는데 고려시대의 <목은집>을 보니 기름, 꿀, 잣, 밤, 대추 등을 넣어 만든 호화로운 음식이 되

었다. 서민들은 이 같은 약밥이 사치품이어서 대신 오곡밥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 풍습이 남게 된 듯하다. 그 밖의 대보름 절식은 오곡수라, 묵은 나물(上元菜), 유밀과, 원소빙, 작 절(嚼齋, 부럼), 유몽 주(爽餅酒, 귀 밝기 술), 복쌈(福裹), 팔죽(赤豆粥) 등이다.

▶정월 고사(告祀)

정월 첫 오(午)일에는 시루떡을 찌서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세시도신(歲時壽神)이라 한다. 붉은팥 시루떡(赤豆餠餅)을 만들어 시루 찌로 곳곳에 놓고 일 년 동안 무사평안하기를 비는 행사로 민가에서는 물론 궁중에서도 지낸다. 예전부터 상오(上午)일에는 마구간에 제를 지내고 찬을 주어 위로하는 예가 있었다. 무오(戊午)일을 길일로 택하여 무시루떡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조 궁중에서 계묘(癸卯:1843)년 3월 26일 함평전(咸寧殿)에서 지낸 고사의 내용을 적은 발기를 살펴보면 우선 함평 전 대청, 온돌, 우물, 앞뜰, 뒤뜰, 의대 방, 세수간 등과 숙용 제의 대청, 복도, 동쪽 뜰, 서쪽 뜰 등과 상관간의 앞뜰, 뒤뜰, 우물, 함문과 그리고 수라간, 퇴신간, 단고 간, 이간방 등 전부 46개 처이다. 고사음식은 주로 시루떡, 복어, 탁주 또는 약주의 세 가지를 주로 차리지만, 곳에 따라서는 백설기, 돼지머리, 소머리, 돼지다리, 실과, 호초차 등을 올리는 곳도 있다.

▶입춘채(入春菜) 입춘 날에는 궁중에 진상 채(進山菜)라 하여 경기도의 산골 지방의 육 육(儼儼六畝)에서 움과, 산갓, 당귀 씩(辛甘草), 미나리 씩, 두 씩 등의 오신 반(五辛盤)을 진상하고 민가에서도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

▶삼진날(上巳) 조선시대에는 기로회(耆老會)를 교외에 나가 베풀었다. 중 삼절에는 두견화전(杜鵑花煎), 화면(花麵), 수면(水麵)을 천신한다. 삼진날의 절식은 청주, 육포, 절편, 녹말편, 조기면, 진달래화전, 화면 등이다.

이달의 시

봄은 소리입니다

봄은 소리입니다, 누군가의

거칠어진 마음에 새순 돋는 소리입니다

아찌면 하얗잖이 기다려야 할
눈 감고서도 환한, 취발목

잔설 위로 오솔길 파어오르는 소리입니다

갯바위 손 모아 다가가는

아직도 못 다한, 한 시절

발그렇게 얼굴 달아오르는 소리입니다

여디여디언 어느 품에

알레지, 제비꽃, 꽃망울이

꽃샘바람에 터지는 소리입니다

갯바위 손 모아 다가가는

내 가슴 콩닥거리는 소리입니다



권경업 詩人

62才 안동·별장공파, 36世 (사)아름다운사람들代表